

高麗後期の 無等山信仰과 光州

邊 東 明

1. 머리말
2. 光州人の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
3.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의 배경
4.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의 사회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無等山은 光州를 상징한다. 과거에도 그랬으며 현재도 그러하다.¹⁾ 無等山은 오랜 옛날부터 신성시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숭배를 받아 왔다.²⁾ 그리고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정비

1) 무등산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박선흥, 「無等山」(도서출판 금호문화, 1976)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무등산」(1993)

2) 우리나라에서 山岳을 신성시하며 숭배한 것은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라고 한다. 하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높은 산이 人間의 세계와 하늘 즉 神의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라고 믿어, 하늘을 섬기듯이 산악을 섬겼다는 것이다(金映遂, 「智異山 聖母祠에 就하여」, 『震檀學報』 11, 1939, pp. 145~146. 金甲童, 「高麗時代의 山嶽信仰」, 『震山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教思想史의 再照明』 上, 1993, pp. 42~43, 47~48).

되면서부터는 국가적인 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³⁾ 統一新羅時期에는 小祀, 高麗時期에는 國祭 그리고 朝鮮時期에 들어서서는 本邑致祭의 대상이 되어, 각각 광주에 파견된 중앙관리 내지는 수령이 無等山神壇에서의 祭禮를 주관하였던 것이다.⁴⁾

한편 위의 무등산에 대한 것과 같은 山岳崇拜信仰은 곧 그 산악의 山神에 대한 숭배와 신앙에 다름이 아니었다.⁵⁾ 통일신라에

- 3) 이처럼 각 지역의 산악신앙을 祀典體系에 편입시켜 국가적인 제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며, 더욱이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을 회유·포섭하고 또한 국가적 위협 요소를 억제·진압하고자 도모하였다고 한다(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朝閣, 1974, pp. 196~210. 姜英卿, 「新羅 山神信仰의 機能과 意義」, 『淑大史論』 16·17合, 1992, pp. 291~295. 金甲童, 앞의 논문, pp. 56~65. 박호원, 「高麗의 山神信仰」, 『民俗學研究』 2, 國立民俗博物館, 1995, pp. 194~197, 206~208).

- 4) 『世宗實錄』 151 地理志 全羅道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光山縣 祠廟 無等山神祠

林 亨, 「錦城山祭에 對한 一考察」(『향토문화』 15,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6)

이해준·정승모, 「月出山 天皇峰 祭祀遺蹟의 性格과 變遷」(『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木浦大 博物館·靈巖郡, 1996)

- 5) 우리나라의 산악신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孫晉泰, 「朝鮮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震檀學報』 1, 1934)

柳洪烈, 「朝鮮의 山土神 崇拜에 對한 小考」(『新興』 9, 1937)

金映遂, 「智異山 聖母祠에 就하여」(『震檀學報』 11, 193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朝閣, 1974)

任東權, 「山神考」(『黃希榮博士回甲紀念論叢』, 1983; 『韓國民俗文化論』, 集文堂, 1983)

鄭勝謨, 「城隍祠의 民間化와 鄉村社會의 變動」(『泰東古典研究』 7, 1991)

金甲童, 「高麗時代의 城隍信仰과 地方統治」(『韓國史研究』 74, 1991)

서의 五岳 숭배가 산악 그 자체에 대한 그것이었다기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라고 여겨지고 있던 산신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듯이,⁶⁾ 무등산에 대한 숭배와 제사도 또한 無等山神에 대한 신앙과 제사이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高麗時期的 無等山信仰 특히 高麗後期的 無等山信仰을, 광주지역 토착세력과 관련 속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시기의 무등산신앙에 관한 기록으로는 元宗 14년(1273)⁷⁾과 忠烈王 7년(1281)⁸⁾의 것 등 둘만이 전해진다. 무등산신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고려후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셈인데, 이 글에서 검토의 시기를 고려후기로 한정하고자 하였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전근대시기의 산악신앙은 흔히 그 산악이 소재하는 지역의 토착 사회세력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洪淳熙,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新羅民俗의 新研究』, 書景文化社, 1991)

姜英卿, 「新羅 山神信仰의 機能과 意義」(『淑大史論』 16·17合, 1992)
金甲童, 「高麗時代의 山嶽信仰」(『震山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教思想史의 再照明』 上, 1993)

박호원, 「高麗의 山神信仰」(『民俗學研究』 2, 1995)

林 亨, 「錦城山祭에 對한 一考察」(『향토문화』 15,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6)

이해준·정승모, 「月出山 天皇峰 祭祀遺蹟의 性格과 變遷」(『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木浦大 博物館·靈巖郡, 1996)

조경만·이경엽, 「天皇峰祭祀의 傳承過程과 月出山の 現行 民俗儀禮」(앞의 책)

6)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震檀學報』 33, 1972; 『新羅 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p. 207~209.

7) 『高麗史』 27 元宗 14年 5月 庚辰

『高麗史』 63 禮 5 吉禮 小祀 雜祀

8)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光山縣 祠廟 無等山神祠

『高麗史』 29 忠烈王 7年 5月 戊戌

알려져 있다.⁹⁾ 광주지역에서의 무등산신앙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터인데, 광주지역 토착세력과 관련 속에서 고려후기의 무등산신앙을 알아보고자 마음먹게 된 배경이 또한 여기에 있다. 신앙의 유래나 祭祀 시기 및 祭儀 혹은 山祠의 위치 등과 같은 무등산신앙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와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행위를 통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획득하고자 도모하는 바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忠烈王 7년(1281)에 광주지역 사람들이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하였던 사실¹⁰⁾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까 생각한다. 무등산신앙에 대하여 제법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고려후기의 무등산신앙과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동향을 이해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음으로, 것처럼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같은 시기에 광주에 이웃하고 있는 고을 羅州에서도 그 鎮山인 錦城山의 山神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거니와,¹¹⁾ 그러한 시기의 비슷함을 반드시

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p. 196~205.

金甲童, 「高麗時代의 山嶽信仰」(『震山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教思想史의 再照明』 上, 1993), pp. 60~65.

박호원, 「高麗의 山神信仰」(『民俗學研究』 2, 國立民俗博物館, 1995), pp. 206~208.

10) 앞의 註 8)과 같음. 자세한 것은 다음의 제1장을 참조하라.

11)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3년 5월

『高麗史』 106 沈誨傳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 두 사건을 아울러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武人政權期 이래의 사회적인 변화와 무관하지만은 않았을 이 일을, 당시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동향과 관련지어 흥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고려후기에 생동하던 지방 사회의 한 단면이나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光州人의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

광주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한 것은, 高麗와 元나라의 연합군이 제2차 日本遠征에 나섰을 때(忠烈王 7, 1281)의 일이었다. 다음의 기록을 살펴 보도록 하자.

無等山神祠 在縣東十里 新羅爲小祀 高麗致國祭 東征元帥金周鼎 祭各官城隍之神 歷呼神名 以驗神異 州城隍鳴鑼鈴者三 周鼎報于朝 封爵焉 本朝 春秋令本邑致祭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光山縣 祠廟)

일본 원정군의 고려군 지휘관이었던 金周鼎이¹²⁾ 출전에 임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 35 羅州牧 祠廟 錦城山祠

12) 『高麗史』 29 忠烈王 7년 5월 戊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는데, 광주의 無等山神이 깃발에 달린 방울을 세 번이나 울리는神通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김주정이 그러한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무등산신을 封爵해 주도록 특별히 요청하였다는 것이다.¹³⁾

金周鼎은 光州를 本貫으로 하는 인물이었다.¹⁴⁾ 무등산이 소재하는 광주와 김주정이 보통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국 각 郡縣에 있는 山神 내지는 城隍神 가운데 유독 그러한 관계에 있던 광주의 無等山神만이 金周鼎의 제사에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김주정은 그것을 빌미로 무등산신에게 爵位를 내려줄 것을 중앙 조정에 희망하였다고 한다. 일본 원정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사에 직면하여¹⁵⁾神通한 영험을 드러냄으로써 도움을 준 데 대한 보답으로, 무등산신에게 특별한 대

13) 본문의 자료에는 金周鼎의 戰勝 祈願에 대하여 無等山神이 아니라 마치 光州의 城隍神이神通력을 보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기록은 無等山神과 관련된 자료임이 분명하다. 이 무렵이면 山岳信仰과 城隍信仰 사이에 혼호 현상이 나타나 혼동이 일기도 한다고 하거니와(金甲童, 「高麗時代의 山嶽信仰」, pp. 53~54), 해당 기록이 城隍祠가 아닌 無等山神祠의 항목에 들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위 자료가 실려 있는 같은 책에 따르면, 無等山과 無等山神祠는 모두 光山縣 동쪽 10里的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반해(『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光山縣 祠廟 無等山神祠, 같은 책, 山川 無等山), 城隍祠는 縣 남쪽 5里 되는 지역에 따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光山縣 祠廟 城隍祠).

14) 『高麗史』 104 金周鼎傳

15) 당시 日本에 원정할 軍士와 軍糧米를 징발하고 또한 그것을 운반할 선박을 건조하는 등, 人力을 포함한 원정 관련 제반 비용을 감당하고자 온 國力을 쏟아부어야만 하였던 고려 정부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pp. 492~512).

우를 해 줄 것을 김주정이 앞장서 요구하였던 셈이다.

김주정이 위에서와 같이 행동한 것을 두고, 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홀로 추진한 일이었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거기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던 光州地域 居住人 내지는 土着 社會勢力의 희망이 들어 있거나 않은가 여겨지는 것이다. 무등산신을 봉작하여 우대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곧 무등산신앙에 대한 우대를 요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무등산신앙에는, 광주 지역민들의 축제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토착세력의 주도 아래 치러지는 행사가 수반되게 마련이었다. 중앙 조정이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鎭山인 무등산으로 상징되는 광주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된 행사를 즐기며 또한 주도하던 광주지역민 및 토착 사회세력의 존재를 더욱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둬 공인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광주 출신의 김주정이 무등산신앙의 우대를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던 지역민 또는 그 대표자인 토착 재지세력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光州人들이 金周鼎을 앞세워 것처럼 무등산신앙에 대한 우대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광주의 위상 강화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나아가 지역 주민 및 그 대표적인 재지유력자들의 존재 과시에 그 목적이 있었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하필이면 忠烈王代 초반(忠烈王 7년, 1281)에 그러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던 까닭이 궁금한 것이다. 사실 고려 조정에서는 그에

앞서 이미 한 차례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다음의 기록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①以光州無等山神 陰助討賊 命禮司 加封爵號 春秋致祭
(『高麗史』 27 元宗 14年 5月 庚辰)

②討三別抄于耽羅也 無等山神 有陰助之驗 命春秋致祭
(『高麗史』 63 禮 5 吉禮 小祀 雜祀 元宗 14년)

元宗 14년(1273) 三別抄를 진압할 때 은밀한 加護를 베푼 데 대한 보답으로, 無等山神에게 爵位를 더해 주고 또한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광주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조정에서 취한 조치이었음이 거의 분명하다고 여겨지거니와, 제2차 일본 원정길에 나선 김주정이 무등산신을 봉작해 주도록 요청하기 바로 8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김주정을 앞세운 광주인들은 불과 8년 전에 이미 무등산신을 우대해 주도록 요청하여 그것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에 더하여 더욱 특별한 대우를 하여 줄 것을 거듭 조정에 요구하였던 셈이다. 小祀 중 雜祀에 해당하는 지방의 일개 山神信仰에¹⁶⁾ 대하여, 것처럼 8년 사이에 두 차례나 거듭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중앙에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곡절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章을 달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6) 『高麗史』 63 禮 5 小祀 雜祀

3.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의 배경

광주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元宗 14년(1273)과 忠烈王 7년(1281)의 두 차례에 걸쳐,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하였음을 알아보았다. 광주의 위상을 높이며, 나아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할 목적에서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들이 것처럼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도모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잠시 같은 시기에 광주의 이웃 고을인 羅州의 錦城山信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 사건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싶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封羅州錦城山神 爲定寧公 先是羅人稱 神降于巫言 珍島・耽羅之事 我有力焉 將士得賞 而不我祿何耶 必封我爲定寧公 邑人寶文閣待制鄭興 惑其言 諷王而爵之 且輟其邑祿米五石 歲歸其祠 (鄭)興卽(鄭)可臣也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3年 5月)

②以耽羅之役 錦城山神 有陰助之驗 令所在官 歲致米五石 以奉其祀

(『高麗史』 63 禮 5 吉禮 小祀 雜祀)

三別抄의 亂을 진압하는 데 힘을 보탬에도 아무런 보답이 없다는 羅州 錦城山神의 불평이, 忠烈王 3년(1277) 5월 山神을 받들던 巫堂의 입을 빌어 조정에 전해졌다. 그러자 나주 출신의 鄭可

臣이 충렬왕을 설득하여 錦城山神을 定寧公에 봉하는 한편, 나주로 하여금 매년 祿米 5石을 錦城山神堂에 보내어 그 제사 비용에 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¹⁷⁾

三別抄가 珍島를 거점으로 왕성하게 세력을 확장해 가던 무렵, 나주의 錦城山城에서는 무려 7일 밤낮에 걸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 지역의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뭉친 나주 사람들이 官軍과 힘을 합쳐 삼별초의 침입에 맞서 공방전을 벌인 것인데, 악전고투 끝에 나주를 지켜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전라도 지역이 송두리째 삼별초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¹⁸⁾ 삼별초의 난과 관련하여 나주지역 주민들이 지냈을 궁지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위 기록에서 錦城山神을 받들던 무당이 하였다는 말도 사실은 羅州人들의 바로 그러한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이거니와, 羅州를 本貫地로 하던 鄭可臣이¹⁹⁾ 지역 주민들의 그와 같은 심정을 헤아려 錦城山神을 封爵해 주도록 국왕을 설득하는 일에 나섰던 것이다. 광주 사람들이 光州 출신의 金周鼎을 앞세웠듯이, 나주 사람들은 또한 羅州 출신의 鄭可臣을 내세워 錦城山信仰을 우대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하였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사지 않는 의문은, 三別抄의 亂이

17) 같은 내용이 『高麗史』 105 鄭可臣傳에도 실려 있다.

18) 『高麗史』 103 金應德傳

『高麗史節要』 18 元宗 11年 9月

洪承基, 「外來族의 侵入과 光州」(『光州市史』 1,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78), pp.365~367.

邊東明, 「鄭可臣과 閔漬의 史書編纂活動과 그 傾向」(『歷史學報』 130, 1991), pp. 8~10, 脚註 16).

19) 『高麗史』 105 鄭可臣傳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새삼스럽게 위에서와 같은 羅州人들의 요구가 나오게 된 까닭이 무엇이였을까라고 하는 점이다. 삼별초가 진압되던 당시(1273)에 제기하여 마땅했을 불만이, 4년이 지나서야(1277) 드러나게 되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그와 관련하여 머리를 스치는 것이, 삼별초의 난이 진압되던 해에 있었던 羅州의 이웃 고을인 光州에 있는 無等山神에 대한 封爵이다. 亂을 진압하는 데 은밀한 加護가 있었다고 하여 元宗 14년(1273)에 無等山信仰을 우대하는 조치가 내려졌었다 함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 錦城山信仰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羅州人들이 중앙 조정에 대해 품었던 불만은 그같은 무등산신앙에 대한 우대 조치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三別抄의 亂과 관련된 羅州人들의 자부심을 상기할 때, 亂이 끝난 뒤의 論功行賞에서 이웃 고을인 光州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았을 법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불만은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 번져갔을 것이며, 마침내 위와 같은 형식으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것이다.

三別抄가 亂을 일으켰을 적에 光州 내지는 無等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를 알려 주는 기록은 쉽게 눈에 띄지를 않는다. 亂을 鎮壓하는 데 무등산 내지는 광주지역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는 것이다.²⁰⁾ 반면에 삼별초의 난 당시 羅州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기록은, 앞서 살펴왔듯이 제법 풍부한 편이다.²¹⁾ 현재 전하는 자료에 의거하는 한,

20) 洪承基, 「外來族의 侵入과 光州」, p.367.

陰善赫, 「外寇의 侵入과 光州」(『光州市史』 1,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92), p.485.

21) 앞의 註 18)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보다는 나주지역이 훨씬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여 그다지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런데 난이 끝나고 나서 막상 공적을 인정받은 쪽은 羅州가 아니라 光州였다. 元宗 14년에 있었던 光州 無等山信仰에 대한 우대 조치로부터 미루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²²⁾ 羅州人들이 錦城山神을 받들던 巫堂의 입을 빌어 불만을 토로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일이었다.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의 차별 없는 처우를 조정에 희망하였던 셈인데,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羅州 출신의 鄭可臣이 地域民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地域에 소재하는 鎭山에 대한 신앙을 우대하는 것은, 곧 그 지역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나아가 지역 주민 및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토착세력의 존재를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元宗 14년에 있었던 無等山信仰에 대한 우대 조치는, 全南地域에서 光州에 비해 상대적으로 羅州의 위상을 격하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羅州人들에게는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시기에 全南地域을 대표한 것은 光州가

22) 三別抄의 亂을 진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굳이 光州地域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삼별초의 침입에 저항하다 전사하였던 광주 출신의 金須를 언급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光州金氏 출신의 金須는 科擧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던 인물로서, 삼별초의 난 당시 濟州島를 지키던 중 공격해 온 삼별초를 맞아 싸우다가 戰歿하였음이 史書에 特記되어 있다. 金須는 이 글에서 수차 거명된 적이 있는 金周鼎의 親兄이자, 고려후기에 재상을 역임한 金台鉉의 父親이었다(『高麗史節要』 18 元宗 11年 11月. 『高麗史』 110 金台鉉傳).

아니라 羅州였다. 後百濟와 高麗가 치열하게 쟁패전을 벌이던 소용돌이 속에서 王建의 편에 섰던 나주가, 고려의 後三國 통합 후 전남지역에서 유일한 主牧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百濟時期에 發羅郡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시기 景德王代(742~764)에 錦山郡(혹은 錦城郡)으로 개칭되었던 나주는, 고려왕조에 들어 몇 번인가의 변동울 거친 끝에 顯宗 9년(1018)에 羅州牧으로 자리매김되었다.²⁴⁾ 1知事府·4知事郡·4縣令官과 48屬郡縣을 거느리는 界首官으로서, 고려시기 내내 나주는 전남지역의 으뜸가는 행정치소였던 것이다.²⁵⁾

반면에 고려시기의 광주는 나주에 領屬된 일개 屬郡縣 내지는 縣令官에 지나지 않았다. 나주와 달리 후삼국시기에 끝까지 王建에게 적대적이던 세력권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⁶⁾ 眞聖女王 6년(892)에 甄萱이 後百濟를 개창하는 출발지였던 광주는, 그 수도가 全州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후백제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 甄萱의 사위인 池萱과 아들인 龍劍이 그 城主를 차지하고

23) 洪承基, 「地方制度의 成立과 光州」(『光州市史』 1, 1978), pp.313~315.

陰善赫, 「地方制度의 整備와 光州」(『光州市史』 1, 1992), pp.417~419.

이중효, 「지방제도의 정비와 전남」(『全羅南道誌』 3, 1993), pp.196, 204~205.

24) 『高麗史』 57 地理 2 全羅道 羅州牧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全羅道 羅州牧 建置沿革

25) 尹武炳, 「高麗時代 州府郡縣의 領屬關係와 界首官」(『歷史學報』 17·18合, 1962), pp.339~349.

陰善赫, 「地方制度의 整備와 光州」, pp.428~430.

26) 洪承基, 「地方制度의 成立과 光州」, pp.313~315, 319.

陰善赫, 「地方制度의 整備와 光州」, pp.418~419, 428~430.

이중효, 앞 논문, p.196.

있으면서 경계를 맞대고 있던 나주지역의 왕건에게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전주와 더불어 손꼽히는 反高麗勢力的 근거지였던 것이다. 百濟時期 이래 武珍州 혹은 武州라 불리면서 전남지역을 이끄는 정치·군사·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광주는, 그리하여 고려왕조의 통치 아래 들어서면서 邑格의 강등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成宗 15년(996) 이후 어느 때인가, 아마도 顯宗代(1009~1031) 무렵²⁷⁾ 마침내 屬郡縣으로까지 격하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²⁸⁾ 그 후 언젠가 海陽縣令官으로

27) 顯宗 9년(1018)에 고려시기 지방통치제도의 대체적인 골격이 마련되었음을 감안하여 것처럼 짐작하였다(邊太燮, 「高麗前期의 外官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1, 一潮閣, pp. 129~130. 河炫綱, 「高麗初期의 地方統治」, 『韓國中世史研究』, 1988, 一潮閣, pp. 202~205).

28) 고려전기에 광주가 屬郡縣으로까지 격하되어 있었음은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①梁元俊 字用章 忠州人 起自胥吏 監光州務(下略) (『高麗史』 99 梁元俊傳)

②公諱元俊 字用章 姓梁氏 忠州人也(中略)庚子十二月 例受光州監務(下略) (『高麗墓誌銘集成』 梁元俊 墓誌銘)

宣宗 6년(1089)부터 毅宗 12년(1158)까지 생존하였던 梁元俊의 列傳과 墓誌銘의 일부이다. 위 기록에 따르면, 양원준은 睿宗 15년(1120)에 光州 監務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顯宗 9년(1018) 이래 屬縣에 머물러 있던 광주가 睿宗代에 이르러 監務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해야하지거니와, 위 양원준의 사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임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金東洙, 「고려 중·후기의 監務 파견」, 『全南史學』 3, 1989, p.67).

한편 그와 달리 成宗 11년(992) 내지 14년(995)에 광주가 海陽縣令官으로 격하되었다가, 同王 14년(995)에 刺史를 그리고 穆宗 8년(1005)에 다시 縣令을 守令으로 맞이하였으며, 그리하여 顯宗 9년

되었던 광주는,²⁹⁾ 무인정권 말기에 들어서야 다시 그 邑格을 상승시키는 기회를 잡았다. 崔氏武人政權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던 武人執政 金俊의 外鄉이 광주라는 이유로 해서이었다. 崔氏家の 奴婢 출신이었던 김준이 高宗 45년(1258) 王政復古를 기치로 崔姓을 제거한 다음 집권하자³⁰⁾, 그의 외향이라 하여 高宗 46년(1259)에 海陽縣을 翼州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고려전기 이래 縣令官에 머무르던 광주의 읍격이, 執權武人 덕택에 知事州로 상승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한때 광주는 牧(光州 혹은 武珍州)³¹⁾으로까지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忠宣王 2년(1310)에 다시 化平府로 강등되는 등 몇 차례 읍격의 오르내리기를 거듭한 끝에, 恭愍王 22년(1373)에 光州牧이 되어 고려왕조가 끝날 때까지 목사 고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³²⁾

그런데 이상에서와 같은 高麗時期 光州의 沿革 가운데 이 글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高宗 46년 이후 충선왕 2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광주가 牧使州로까지 승격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

(1018) 이후 高宗 46년(1259)까지 縣令官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洪承基, 「地方制度의 成立과 光州」, pp.318~326. 陰善赫, 「地方制度의 整備과 光州」, pp.425~428).

29) 『高麗史』 57 地理 2 全羅道 海陽縣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全羅道 光山縣 建置沿革

30) 野澤佳美, 「金俊의 政變에 대하여」(『史正』 12, 1982)

鄭修芽, 「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東亞研究』 6, 1985)

金塘澤, 「崔氏政權의 붕괴」(『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社, 1987)

31) 『高麗史』 57 地理 2 全羅道 海陽縣條에는 光州로 나와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全羅道 光山縣 建置沿革條에는 武珍州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32) 『高麗史』 57 地理 2 全羅道 海陽縣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全羅道 光山縣 建置沿革

사실이다. 고종 46년 海陽縣令官으로부터 知翼州事로 승격되었던 광주가, 충선왕 2년에 化平府로 다시 강등될 때에는 이미 光州(武珍州)牧에까지 올라 있었던 것이다.³³⁾ 그렇다면 광주가 것처럼 牧使州로 승격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고종 46년 이후 충선왕 2년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리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원종 14년(1273)이 아닌가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종 14년은 삼별초 진압에 공이 있었다고 하여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조치, 다시 말하여 광주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조치가 내려진 해이었다. 따라서 만일 광주를 승격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서 이때만큼 적절한 시기는 달리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사실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조치가 내려졌음을 전하는 원종 14년의 기록에서도,

以光州無等山神 陰助討賊 命禮司 加封爵號 春秋致祭
(『高麗史』 27 元宗 14年 5月 庚辰)

라고 하여, 이미 光州라는 名號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고종 46년(1259)의 승격 조치 이래 翼州라 불리어 왔을 지역 官府의 名號가, 14년 뒤인 원종 14년(1273)에는 光州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무등산신앙을 우대하는 조치를 알리는 자료에, 이처럼 翼州가 아

33) ①(前略)成宗十四年 降爲刺史 後又降爲海陽縣令官 高宗四十六年 以金仁俊外鄉 陞知翼州事 後陞爲光州牧 忠宣王二年 復降爲化平府(下略) (『高麗史』 57 地理 2 全羅道 海陽縣)

②(前略)成宗十五年 降爲刺史 後又降爲海陽縣令 高宗四十六年 以功臣金仁俊外鄉 陞知翼州事 後陞爲武珍州 忠宣王二年 降爲化平府(下略) (『新增東國輿地勝覽』 35 全羅道 光山縣 建置沿革)

년 光州라는 명호가 사용된 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여겨지거니와, 광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무등산신앙 우대 조치와 더불어 光州의 邑格도 동시에 知事州에서 牧으로 승격시켰던 것이 아닌가 헤아려지는 것이다.³⁴⁾

삼별초의 난이 진압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羅州人들이 새삼스레 당시의 論功行賞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바로 여기에 그 까닭이 있었다고 믿는다. 무등산신앙을 우대함과 아울러 光州의 邑格을 牧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그동안 羅州가 누려 왔던 바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主牧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주인들로 하여금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삼별초의 난 당시에 세웠던 공적을 내

34) 그런데 본문에서의 그러한 추측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혼란스럽다.

都兵馬使請 降號賊鄉尙州·淸州·海陽·珍島等州 且從賊入耽羅者禁錮 王只許禁錮 (『高麗史』 28 忠烈王 2年 8月 甲子)

忠烈王 2년(1276) 都兵馬使에서 三別抄의 亂에 개입한 인물들의 貫鄉을 강등시키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거니와, 그 중에 ‘海陽’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元宗 14년(1273)에 이미 光州牧으로 승격되었으리라는 앞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인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 나오는 海陽이라는 지명은 관행적인 표기에서 빚어진 착오가 아닌가 싶다. 만약 元宗 14년에 光州牧으로 승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翼州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 사료에서와 같이 海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앞서 高宗 46년(1259)에 海陽縣 令官으로부터 知翼州事로 승격된 이래 다시 강등되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위 사료에 나타나는 海陽이라는 지명 표기가, 곧 元宗 14년의 光州牧 승격을 부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우면서 금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애 요구하였던 것은, 그러므로 무등산신앙을 앞세워 전남지역에서의 위상 강화를 노리던 광주인에 대해 나주인이 가했던 반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로써 광주에 비해 나주가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한편 전남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羅州人들의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 光州人들도 팔짱을 낀 채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앞 章에서 언급하였던 바, 忠烈王 7년(1281)에 金周鼎으로 하여금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재차 조정애 요구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제2차 일본 원정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사를 계기로 삼아, 전남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다시 한번 나주와 겨뤄 보고자 하는 광주인들의 속셈을, 여기에서 읽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三別抄의 亂이 진압되자, 光州人들은 그 鎭山인 無等山에 대한 신앙을 내세워 전남지역 내에서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도모하였다. 百濟時期 이래 統一新羅에 이르도록 장악해 왔던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羅州로부터 되찾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元宗 14년(1273)에 있었던 無等山信仰 우대와 光州 邑號 승격의 조치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자 羅州人들도 忠烈王 3년(1277)에 錦城山信仰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애 요구하여 관철시킴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主牧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남지역 내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나주인들의 반격이었다. 충렬왕 7년(1281)에 있었던 김주정의 무등산신앙 우대 요구는, 그러므로 나주에서의 그같은 움직임에 대한 광주인들의 재반격인 셈이었다. 요컨대 광주인들이 원종 14년과 충렬왕 7년

두 차례에 걸쳐 무등산신앙에 대한 우대를 조정에 요구하였던 것은, 광주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고려왕조에 들어서면서 나주에 넘겨줘야만 되었던 지역 대표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던 그들의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인들이 원종 14년과 충렬왕 7년에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조정에 요청하기에 이른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제 그와 같은 우대 요구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알아 볼 차례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章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의 사회적 의미

無等山信仰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청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주지역 주민 특히 그 대표적인 지역의 土着 社會勢力이었다. 그로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던 광주의 토착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고려시기에 각 지방을 대표하던 在地의 土着勢力으로는, 흔히 土姓이라 일컬어지던 일군의 氏族集團이 거론되곤 하여 왔다. 戶長 등 상급 鄉吏層의 구성원으로서 邑司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에 의해, 고려시기 각 郡縣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³⁵⁾ 광주지역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이었음은 물론이다. 卓·李·金·蔡·盧·鄭·張·承 등 13개의 土姓集團이, 고려시기

35) 李樹健, 「土姓研究 序說」(『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pp.2~9.

의 광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던 주도세력이었음이 알려져 있는 것이다.³⁶⁾

그런데 고려시기의 土姓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광주의 在地勢力 가운데 일부가 성장하여 중앙에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高麗中·後期에 들어서의 일이었다고 한다. 高麗前期에 중앙에서 활동한 광주 출신의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武人政權의 시기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그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³⁷⁾ 光州人들이 元宗 14년과 忠烈王 7년에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王京 진출에 착하여 나타난 현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고려전기의 경우 아직 中央官職者를 배출할 정도로까지 성장하지 못하였던 광주의 在地 有力者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를 대변할 만한 중앙에서의 통로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셈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武人政權期 이래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社會勢力의 진출에 발맞추어 中央에 등장하기 시작하던 光州의 土着勢力을 배경으로, 마침내 光州人들이 그 존재를 과시하고자 조정에 無等山信仰의 우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元宗 14년과 忠烈王 7년에 있었던 光州人들의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는, 그러므로 高麗後期 들어 광주의 土着 社會勢力이

36) 洪承基, 「光州의 社會構造」(『光州市史』 1,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78), pp.350~354.

陰善赫, 「光州의 社會構造」(『光州市史』 1,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92), pp.459~466.

37) 李樹健, 「高麗後期 支配勢力과 土姓」(『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pp.323~326.

그만큼 성장해 있었음을 반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선 그 社會的 意味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光州의 土姓 가운데 것처럼 고려후기에 王京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氏族으로는, 金氏를 비롯하여 卓氏와 蔡氏·鄭氏·李氏·盧氏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光州金氏의 진출은 눈부신 바가 있거니와, 처음 武人政權의 시기에 武班으로 진출을 시작하였던 이 가문은 다수의 科擧及第者와 더불어 宰樞에까지 오른 인물을 잇달아 배출하면서 고려후기의 손꼽히는 名門으로 떠올랐다.³⁸⁾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요구하는 데 앞장섰던 金周鼎도 바로 이 광주김씨 가문에 속한 인물이었다 함은 이미 말한 대로이다. 그러므로 고려후기에 광주지역을 대표하던 토착 사회세력이라고 하면, 곧 광주의 土姓 중에서도 王京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이들 姓氏集團을 가리킨다고 하여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³⁹⁾ 특히 光州金氏를 그 가장 현저한 사례로 꼽을 수가 있으려니와, 그리하여 無等山信仰에 대한 우대 요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광주의 土着 社會勢力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또한 광주김씨 출신의 金周鼎이 光州人을 대신하여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하였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가 있듯이, 더욱이 그 중에서도 광주김씨를 그 가장 대표적인 사회세력이었다고 지적하여 큰 잘못은 아닐 줄 믿는다.

요컨대 고려후기에 있었던 光州人들의 無等山信仰 우대 요구에

38) 李樹健, 「高麗後期の 支配勢力과 土姓」, pp.323~326.

柳昌圭, 「地方勢力의 推移와 農民의 生活」(『光州歷史』,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98), pp.105~108.

39) 洪承基, 「光州의 社會構造」, p.355.

는, 광주지역 土着 社會勢力의 성장, 나아가 그 중에서도 光州金氏 가문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할 것이다.

5. 맺음말

高麗後期の 無等山信仰을 광주지역 토착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다. 신앙의 由來나 祭祀 時期 및 祭儀 혹은 山祠의 위치 등과 같은 무등신신앙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와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 행위를 통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획득하고자 도모하던 바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光州人들은 忠烈王 7년(1281)에 金周鼎을 앞세워, 無等山神을 封爵하고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도록 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 鎮山인 무등산으로 상징되는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며, 나아가 관련 행사를 주도하던 지역민 및 그 대표자인 지역 토착세력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었다. 그런데 광주인들은 그에 앞서 8년 전인 元宗 14년(1273)에도, 三別抄 진압과 관련하여 무등산신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에 요청하여 이미 그 뜻을 이룬 적이 있었다. 지방의 일개 山神信仰에 대한 조치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는 全南地域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이웃 고을인 羅州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리 된 것이었다.

百濟時期 이래 統一新羅에 이르도록 전남지역을 이끄는 중심지

있던 광주는, 고려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주도권을 나주에 넘겨 주어야만 하였다. 後三國時期에 王建의 편에 섰던 羅州가 전남지역의 유일한 主牧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반면에, 甄萱의 편에 섰던 光州는 그러한 羅州에 領屬된 일개 屬郡縣 내지는 縣令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三別抄亂의 진압을 계기로, 광주인들은 나주로부터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시도하였다. 元宗 14년(1273)에 있었던 무등산신앙 우대와 光州 邑號 승격의 조치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자 羅州人들도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忠烈王 3년(1277)의 錦城山信仰에 대한 우대 요구가 그것이었다. 중앙 조정으로부터 그 鎭山인 錦城山信仰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받아냄으로써,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다. 忠烈王 7년(1281)의 무등산신앙 우대 요구는, 그러므로 나주인들의 그같은 반격에 대한 광주인들의 재반격인 셈이었다. 광주인들이 元宗 14년과 忠烈王 7년 두 차례에 걸쳐 무등산신앙에 대한 우대를 조정에 요구하였던 것은, 요컨대 광주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나주로부터 지역 대표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던 그들의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은 일이었다.

한편 광주인들이 고려후기에 이처럼 무등산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중앙 조정에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은, 武臣亂 이래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사회세력의 王京 진출을 배경으로 하여서이었다. 고려전기의 경우 아직 중앙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하던 광주의 토착세력들은 武人政權期 이후 차츰 開京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존재를 과시하고자 조정에 무등산신앙의 우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元宗 14년과 忠烈王 7년

에 있었던 광주인들의 무등산신앙 우대 요구는, 그러므로 고려후기 들어 광주의 토착 사회세력이 그만큼 성장해 있었음을 반영한 사건이란 점에서 그 사회적 의의를 찾아 볼 수가 있는 일이었다. 또한 나아가 광주의 토착세력 중에서도 특히 고려후기에 손꼽히는 명문으로까지 떠올랐던 광주김씨 가문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데에, 더욱이 그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